

KCC이지스 “올시즌 목표는 통합챔피언”

프로농구 16-17시즌 구단 전망... 빈약한 포워드 진영·주전들의 보완 따라 시즌 희비 엇갈릴 듯

인드레 에잇의 놀라운 활약으로 정규시즌1위에 등극했던 전주 KCC이지스 농구단이 16-17시즌 KBL 통합챔피언 등극을 위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다. 골지 후보로 평가받았지만 인드레 에잇과 하승진의 분전을 앞세워 정규시즌 1위로 챔피언십에 진출한 전주 KCC는 결승에서 고양 오리온스의 조 잭슨, 에런 헤인즈 듀오에 완패되며 아쉬운 준우승에 그친 바 있다. 오피시즌 활발한 트레이드와 성공적인 외국인,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알짜보장을 한 전주 KCC이지스 농구단의 16-17시즌을 전망해본다. /편집자 주

지난 시즌 가장 문제가 됐던 가드 부분은 전태풍과 김태술의 동선문제는 김태술을 서울 삼성으로 보내는 것으로 해결했다.

전태풍과 김태술은 오프 더 볼 움직임 보다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빛을 내는 선수들로 시즌 내내 볼 소유에 대한 문제로 팀을 곤란하게 했다.

김태술과 하승진의 2대2 플레이를 볼 수 없는 것은 아직까진 구단은 아직 리그 최고의 수준의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태풍을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태술과 트레이드 된 이현민은 볼 소유에 대한 욕심을 최대한 줄이고 전태풍과 에잇을 보조하는 보조 가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즌 후반 부상에서 돌아와 3점 슈터로써 훌륭한 역할을 했던 김민구의 몸상태가 더욱 좋아질 전망이고 김효범과 김지후 역시 슈팅에는 일각연이 있는 선수로 외곽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포워드 부분은 외국인 리오 라이온스(29·205cm)의 합류로 확실히 단단해

졌다. 지난해 정식센터 용병이었던 하버트 힐과 달리 비슷한 신장의 리오는 좀 더 포워드다운 부드러운 드리블과 외각슛을 갖추고 있어 센터 하승진과 좋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졸 투기로 데뷔해 놀라운 활약을 펼친 송교창은 안전한 주전으로 풀타임 활약을 할 예정이다.

이어 신인 드래프트에 선발한 최승욱과 정민수, 노승준 등이 백업 선수로 출전한다. 하지만 분명 리그 내 타팀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는 포워드진은 시즌 내내 골칫거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부동의 주전 하승진이 든든하게 골밑을 지킬 예정이다.

하지만 부상이 잦은 하승진을 대신할 대체 국내선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KCC는 주태수를 트레이드로 영입했다. 이어 신인 1라운드픽에서 정통 센터 한준영을 선발하며 하승진의 부상에 대비했다.

힐이 떠난 상황에서 하승진의 몸상태가 KCC의 골밑의 명운을 가를 예정이다.



전주 KCC이지스 농구단이 16-17시즌 KBL 통합챔피언 등극을 위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 3월 2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5-2016 KCC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4차전 고양 오리온스와 전주 KCC 이지스의 경기에서 KCC 인드레 에잇이 오리온스 문태종의 수비를 피해 슛을 시도 하고 있는 모습.

종합적으로 KCC는 탈 KBL급으로 평가받는 에잇과 국내에서 항상 훌륭한 모습을 보인 용병 리오 라이온스 그리고 국내 선수 포지션 TOP5에서 다투는 하승진, 전태풍 등이 있어 강력한 우승후보로 평가 받고 있다.

다만 빈약한 포워드 진영과 주전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노장선수들로 부상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 시즌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긴 암흑기를 탈출하고 화려한 부활의 날개를 펼친 전주 KCC이지스 농구단이 2016-17시즌 어떠한 결과로 전주의 팬들을 즐겁게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근 기자

전북지역 대규모 체육행사 풍성

전주시 일원서 K-스포츠클럽교류대회 등

도내 일원에서 국제대회와 전국대회 등 다양한 체육행사가 잇따라 개최된다.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남원춘향골체육관에서 열리는 '제7회 아시아게이트불선수권대회'와 같은 날 전주시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 K-스포츠클럽 교류대회'를 시작으로 22일 23일 양일간 남원야생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제9회 전라북도지사기 족구대회', 22일 완주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17회 문체부장관기 에어로빅스체조경연대회' 등 다양한 종목의 다채로운 체육행사가 연속해서 열린다.

또한,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2016 도지사기대학생 클럽대학생체육대회'역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라북도체육회 행사 기획관계자는 "운동하기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 국제대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행사가 도내에서 열려 스포츠열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크고 작은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우리도 선수들의 경기력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호원대 스포츠탈, 전국체육대회서 유수·펜싱 7개 메달 획득 활약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스포츠탈(단장 이명찬)이 지난 7일부터 충남 일원에서 펼쳐진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우수, 펜싱 종목에서 총 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활약을 펼쳤다.

호원대 우수 선수단은 9일부터 11일까지 충남 홍주문화체육관에서 진행된 우수 경기에서 총 6개의 메달을 품에 안았다.

우수 산타 65kg 경기에서 무도경호부 박승모(무도경호 4년)와 송기철(무도경호 1년)이 만나 실력을 겨룬 결과 박승모가 1위로 금메달을, 송기철이 은메달을 획득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또 산타 56kg 경기에서 김덕호(무도경호 2년)가, 산타 75kg에서 권태우(무도경호 2년)가 각각 동메달을 손에 쥐었다.

우수 투로 장권전능 종목에서는 김원중(무도경호 4년)과 이하성(무도경호 4년)이 2위를 차지해 나란히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밖에도 8일 치러진 플러레 개인전 펜싱경기에서는 전의성(스포츠학부 1년)이 로러스 소속 박희경을 물리치고 3위인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명찬 스포츠탈장은 "메달 여부를 떠나 이번 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권산=문정곤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 2020년 도쿄올림픽 조정·카누 경기 한국서 분산 개최 방안 검토

대한체육회, “도쿄올림픽 분산개최 관련 통보 받은바 없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년 도쿄올림픽 조정·카누 경기를 한국에서 분산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어떠한 내용도 통보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19일 “2020 도쿄올림픽 조정경기를 충주에서 개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아직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전달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일본 현지 매체는 IOC가 도쿄올림픽 조정·카누 경기장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경기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도쿄도는 조정·카누 경기장 건설 비용이 기존 예산보다 7배 넘게 증가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대체 시설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IOC는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올림픽 개최 신청을 철회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개최국 밖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14년 IOC가 채택한 올림픽 개혁안 '어젠다 2020'이다.

어젠다 2020에 따라 IOC는 도쿄올림픽 조정·카누 경기를 한국에서 분산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IOC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

토하거나 수용하고자 했을 때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

대한체육회는 IOC와 도쿄 조직위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있다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

지금까지 올림픽은 단일 국가에서 치러지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지난 1956년 열린 제16회 멜버른올림픽 당시 호주내 검역절차로 인해 승마 경기용 말의 반입이 쉽지 않자 승마 경기만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따로 진행된 것을 제외하면 분산해서 열린 사례는 없다.

더욱이 올림픽을 이미 한 차례 개최했고, 경제 대국인 일본이 비용 문제를 이

유로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IOC의 분산 개최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도쿄 조직위가 경기장 신설 비용을 줄이거나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자국내 개최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IOC가 분산 개최를 강요할 수도 없다.

체육회 관계자는 “한 때 IOC가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 방안을 논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도쿄올림픽의 비용 문제가 불거지자 분산 개최 이야기가 거론된 것”이라며 “IOC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